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46
2025년 6월



전라남도
고흥 애도(쑥섬)

ISLAND KEYWORD
FRIENDS
PHOTO STORY
LIFESTYLE
PEOPLE
RESOURCE
TRAVEL
NEWS&ISSU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46
2025년 6월



전라남도
고흥 애도(쑥섬)

ISLAND KEYWORD
FRIENDS
PHOTO STORY
LIFESTYLE
PEOPLE
RESOURCE
TRAVEL
NEWS&ISSUE

CONTENTS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03 정원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04 작은 섬 정원이 밝히는 등대 고흥 쑥섬
김준 님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10 바다 위 정원, 쑥섬이 피어난 시간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14 삶이 꽃처럼 피어나는 섬

섬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섬센터에 언제든지 공유해주세요.

에디터 김신연

* 전화 : 061-286-6764 * 이메일 : fun1015@korea.kr

전남의 섬에서 펼쳐지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8 자연과 사람, 시간이 만든 민간정원 1호
김상현 님

21 섬밥상 위에 담긴 마음, 쑥섬에서 만난 요리사
김경희 님

21 고향에서 다시 시작한 삶, 쑥섬의 하루를 지키다
박영재 님

RESOURCE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24 1월부터 12월까지,
고흥 애도(쑥섬)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25 알아두면 쓸모있는 K-섬 잡학사전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26 고흥 애도(쑥섬) 투어가이드
쑥섬 탐방 가보자 GO!

NEWS&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32 한국섬뉴스와 함께하는 이달의 주요 섬 뉴스

도움 주신 분

김준 섬 문화 박사 겸 작가

김상현 힐링파크 쑥섬쑥섬 쑥섬지기

김경희 쑥섬집밥 요리사

박영재 이장

고흥군 봉래면사무소

양진형 한국 섬 뉴스 대표

발 행 처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글·사진 김신연, 정태균

전남 섬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가고 싶은 섬 소식이 궁금하다면?

지금까지 발간된 '시옷'이 궁금하다면?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정원

세계적인 작가 헤르만 헤세가 인생 후반기를 바친 곳은 정원이다. 삶과 자연의 깊은 교훈이 담긴 사색의 장소에서 풀과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정원일의 즐거움'이라는 작품으로 남겼다. 누구에게나 정원은 자연과 교감하며 함께 살아가는 장소다.

우리나라 정원을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관리하는 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정원은 식물과 토석, 조형물 등을 전시하거나 가꾸며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공간을 뜻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정원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고, 담양 죽녹원과 같은 지방정원은 13개소, 고흥 힐링파크 쑥섬쑥섬 등 민간정원은 총 161개소에 이른다. (2024년 12월 기준)

6월, 뭐든 길러내는 여름 기세에 뭐든 잘 자란다. 화려한 봄꽃들의 향연이 시들어지고, 수국을 위시해 여름 꽃이 열기를 품고 비와 함께 온다. 심어 놓은 작물보다 빠르게 자라는 잡초들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 고흥 힐링파크 쑥섬쑥섬 별정원



국내 정원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정원누리' 페이지로
이동해 보세요.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작은 섬 정원이 밝히는 등대
고흥 쑥섬

김 준 | 섬문화답사기 저자, 한국섬진흥원 이사,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정원이 지역에 활력을 주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 정원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 정부가 조성하고 관리하거나, 기업이나 문중에서 조성한 민간정원인 경우가 많다. 쑥섬처럼 한 부부의 노력으로 만들어져 지역에 큰 반향을 일으킨 경우는 거의 없다. 그곳이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에 있는 쑥섬의 '비밀정원'이다.

쑥섬은 외나로도 나로도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0.5km 떨어져 있다. 배를 타면 주변을 둘러볼 사이도 없이 섬에 낚는다. 오롯이 배를 타는 시간은 3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섬 이름은 애도였지만, 주민들 요구로 순 한글인 '쑥섬'으로 바뀌었다. 쑥섬은 쑥이 향긋하고 질이 좋아 붙여진 이름이다. 뱃길로는 가깝지만, 한 반도 남쪽 끝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다. 게다가 나로도라는 큰 섬에 치이고, 거문도라는 섬에 가려져 찾는 사람 거의 없었다.



▲ 힐링파크 쑥섬쑥섬 김상현(왼쪽), 고채훈 부부

애도에 칩냉쿨을 제거하고 꽃씨를 심어 정원을 가꾼 부부는 교사였던 김상현과 약사인 고채운 부부다. 이들 부부가 비밀의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한 지 16년을 맞고 있다. 2016년 문을 연 비밀의 정원 덕분에 애도는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한국관광 100선' 등에 선정되었다. 6월 수국 철에는 주말이면 1천명 이상이 방문한다. 지난해 6만 명이 쑥섬 비밀의 정원을 다녀갔다. 수국철만 아니라 가을과 봄에도 꽃을 피운다. 겨울 바다와 섬은 놀랍게 겨울정원과 잘 어울린다. 사계절 방문해도 좋은 섬이고 정원이다.

그래서 누군가 가볼 만한 섬을 추천해달라면 주저 없이 말해주는 애도를 말한다. 순전히 정원 때문이다. 한 시간 반이면 걸을 수 있지만, 정원을 가꾼 이야기를 알고 나면 가고 싶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비밀의 정원으로 들어가 보자.

Chapter 1

바다를 비밀의 정원에 초대하다

우리나라 정원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으로 구분한다. 쑥섬은 우리나라 161개의 민간정원 중 하나이며, 전라남도에 있는 16개 민간정원 중에서 처음으로 2016년 문을 열었다. 전국에 규모나 시설에서 쑥섬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고 화려한 정원이 많다. 그런데 왜 쑥섬의 '힐링파크'일까.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쑥섬의 비밀정원이 마을공동체와 함께 상생하는 길을 모색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가장 어렵고 항상 과정이며 진행형이다. 문제해결이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며 갈등과 조정을 반복한다. 이것이 마을공동체이며 마을 일이다. 한쪽에 주목하면 지속 가능성이 무너지고, 다른 쪽을 주목하면 공동체가 훼손된다.

그래서 생활공동체와 경제공동체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한다. 마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일들이 어려움을 겪는 지점이다. 쑥섬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하나는 비밀의 정원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이다. 동쪽으로는 나로도항이 서남쪽으로는 손죽도, 초도, 거문도로 이어진다.

곧 섬이 집이고 바다가 정원이다. 쑥섬지기 김상현은 '비밀의 정원의 최대 경관은 바다라고 강조한다. 정원에서 이러한 경관을 '차경'이라 한다. 전국 어느 정원도 흉내 낼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정원을 쑥섬이 가지고 있다. 빌려온 경치라 차경이라 부르며, 유럽과 다른 동양 특히 우리나라 정원의 특징이다.



▲ 비밀의 정원에서 바라본 경관

Chapter 2

비밀의 정원 사람을 초대한다

비밀의 정원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쑥섬은 새천년을 맞이하는 날 부부는 하고 싶은 일 15가지를 각각 적었다. 일중에 버킷 리스트였다. 그중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우리가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으니 되돌려 주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사회에 돌려 줄 것인가를 고민했다. 몇 년을 고민하다가 주목한 것이 외할머니의 고향인 쑥섬이었다. 10가구도 되지 않는 작은 섬에 노인들만 남아 생활하는 곳에서 시작하자고 생각했다.

일터와 가깝고 인연도 있는 쑥섬을 잘 가꾸어 마을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스스로도 행복한 섬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방치된 섬 땅, 칠팔년과 잡목으로 덮인 땅을 조금씩 사들었다. 무려 8년 동안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자를 내면서 매입했다. 그 사이에 아내는 정원 공부를 하고, 남편은 잡목과 칠팔년을 정리했다. 평일에는 직장에서, 쉬는 날에는 쑥섬에서 일을 했다. 그렇게 16년째를 맞고 있다. 이제 김씨는 학교를 퇴직해 정원을 가꾸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내고 있다.

쑥섬이 알려지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도선이다. 쑥섬 옆에는 사양도라는 섬이 있다. 쑥섬보다 크고 사는 사람이 많다. 나로도항에 출발한 도선은 쑥섬과 사양도를 오갔다. 그런데 사양도에 다리가 놓이며 도선이 운항을 중단할 상황이었다. 오롯이 섬으로 남은 애도는 코 앞에 육지를 두고 쳐다만 봐야 할 상황이었다. 도선을 운영하려면 비용을 담당해야 하는데 쑥섬 주민만으로는 어려웠다. 연도교 완공을 앞둔 시점에 비밀의 정원이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방문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400년 동안 개방하지 않았던 당숲을 열어 원시림에 가까운 숲을 방문객에게 제공했다. 마을 숲과 비밀의 정원이 이어지면서 쑥섬을 섬 정원으로 탄생했다. 방문객이 늘자 고흥군은 여행객과 주민을 위한 배를 마련해 제공했다. 더불어 상수도가 설치되어 수도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섬을 둘러싼 여행객이 들어오자 쑥, 미역, 툇 등 섬에서 나는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카페와 식당도 문을 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향을 떠났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전라남도가 지난 10년 동안 추진한 '가고 싶은 섬'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였다. 아이러니하게 쑥섬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오히려 목표를 이룬 섬이다. 그 계기는 '비밀의 정원'이다.



◀ 쑥섬에서 재배된 쑥섬라떼를 맛 볼 수 있는 우주인쑥섬



▲ 갈매기카페



▲ 여행객을 기다리는 쑥섬로컬매장 주민

Chapter 3

풀어야 할 숙제들

쑥섬만을 운항하는 도선이 한 척에서 두 척으로 늘었다.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제 도선 운항에 필요한 기름값과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마을소득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또 비밀의 정원을 운영하는 김씨 부부는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내놓았다. 마을 주민은 로컬푸드 매장에서 특산물을 판매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고정 수입원이 생기면서 마을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새천년에 한 부부가 꿈꿨던 일이 작은 섬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다. 심지어 비밀의 정원을 보기 위해 고흥을 찾는 사람도 생겨났다.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섬이 되면서 새로운 숙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배를 타고 내리고, 정원에 오르고 내리는 동안에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더 중요한 것은 목소리 큰 사람이 마을운동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일이다.

마을 수익금을 균등하게 나누는 일은 매우 민감하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기존에 섬을 지켰던 사람과 조화롭게 생활하는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 무엇보다 마을과 비밀의 정원이 존중하고 공존의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이 끊임없이 모색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다.



▲ 쑥섬에서 바라본 나로도항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바다 위 정원, 쑥섬이 피어난 시간

Chapter 1. 이름에서 시작된 섬의 기억

고흥반도 남단, 나로도항에서 배를 타고 단 몇 분이면 닿는 섬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지만, 선착장에 발을 딛는 순간 마음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곳은 애도(艾島), 사람들은 쑥섬이라 부릅니다. ‘艾’는 한자로 쑥을 뜻합니다. 섬 전역에 자생하던 향긋한 쑥은 오래도록 주민들의 생활과 깊이 맞닿아 있었고 지금도 섬 어귀 곳곳에 그 흔적이 살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봄이면 쑥을 캐기 위해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고 들판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마다 꽃과 나무가 자리를 잡고 이 섬만의 고유한 시간과 향기를 품어 냅니다. 섬의 이름은 여전히 그 모든 기억을 다정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 나로도항에서 출발한 쑥섬호

Chapter 2. 섬의 지형이 품은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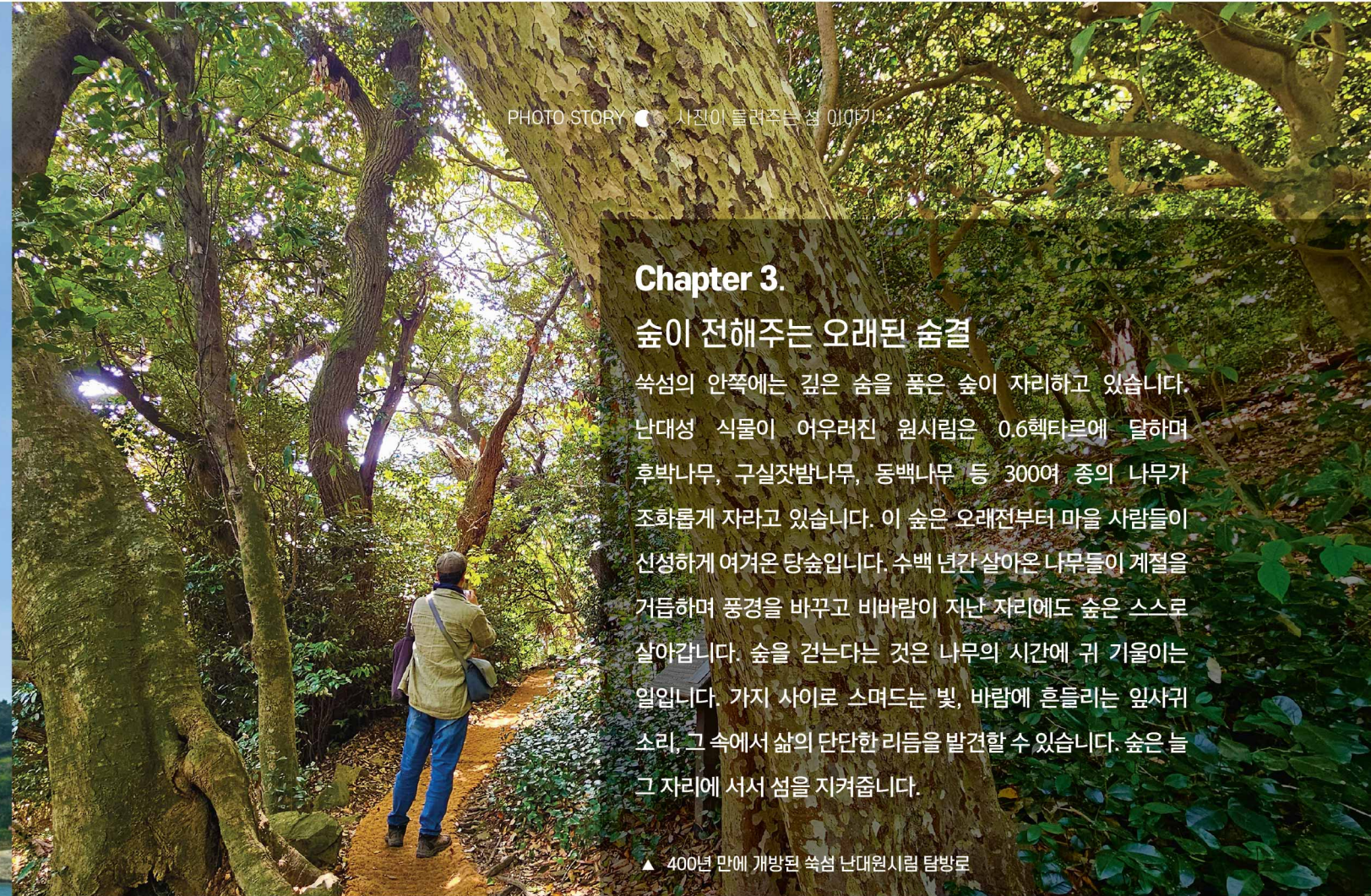
쑥섬은 위에서 보면 누운 소의 형상을 닮아 ‘와우형(臥牛形)’이라고도 불립니다. 부드럽게 굽은 곡선과 완만한 경사는 섬을 한층 포근하게 느끼게 합니다. 바다의 품 안에 감싸인 듯한 지형 덕분에 파도가 거세게 이는 날에도 섬 주변은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섬은 잔잔한 물결 위에 떠 있는 정원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섬을 ‘봉호(蓬湖)’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결 위에 비친 정원의 실루엣은 몽환적이고, 햇살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하루에도 여러 얼굴을 보여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정원길이 펼쳐집니다. 별정원, 달정원, 해상정원 등 각각의 이름을 가진 공간들은 저마다의 색과 계절을 담아냅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따라 하루를 걷고, 누군가는 평생을 가꿔왔습니다.

Chapter 3.

숲이 전해주는 오래된 숨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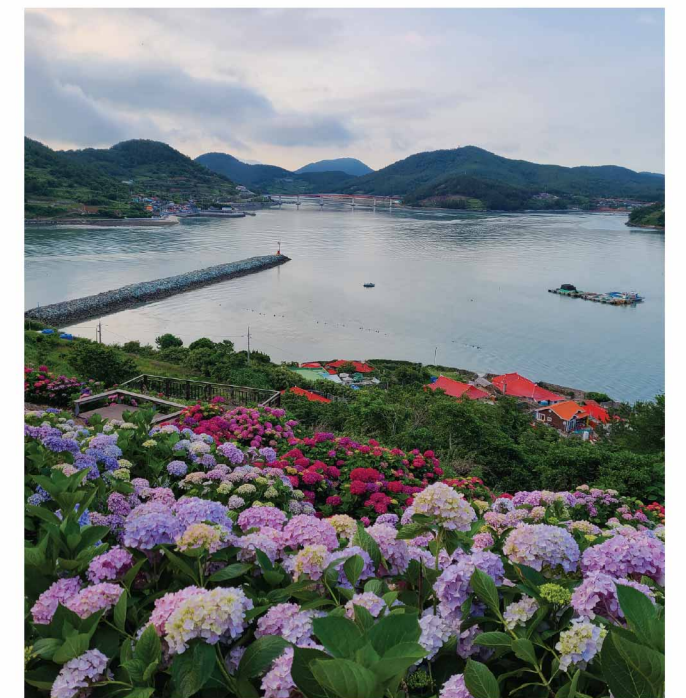
쑥섬의 안쪽에는 깊은 숲을 품은 숲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난대성 식물이 어우러진 원시림은 0.6헥타르에 달하며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등 300여 종의 나무가 조화롭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숲은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겨온 당숲입니다. 수백 년간 살아온 나무들이 계절을 거듭하며 풍경을 바꾸고 비바람이 지난 자리에도 숲은 스스로 살아갑니다. 숲을 걷는다는 것은 나무의 시간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빛,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 그 속에서 삶의 단단한 리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숲은 늘 그 자리에 서서 섬을 지켜줍니다.

▲ 400년 만에 개방된 쑥섬 난대원시림 탐방로



Chapter 4. 바다 위에 피어난 정원

쑥섬을 걷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구나.’ 이곳을 만든 건 바람도, 파도도, 기계도 아닌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김상현·고채훈 부부를 비롯한 섬 주민들은 수년간 정원을 가꾸며 섬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수국, 팬지, 천일홍, 라벤더...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해도 꽃이 피는 길을 걸을 때마다 마음이 환해 집니다. 정원에는 벤치가 있고, 그늘이 있고, 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쉬었다 가는 자리에 또 하나의 꽃이 피어나고 그 풍경은 여행자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쑥섬은 풍경이 아니라 시간이며 누군가가 정성껏 가꾼 하루의 기록입니다. 사진으로 남기는 이 섬의 장면들은 그 자체로 조용하고 단단한 감동이 됩니다.



▲ 정성이 담겨있는 쑥섬 수국정원

쑥섬은 정원을 닮았습니다. 햇살이 드는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표정, 오랜 손길이 머문 돌담과 길, 하루를 걸어도 끝이 없는 이야기가 이 작은 섬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정원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LIFE 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삶이 꽃처럼
피어나는 섬

▲ 애도(쑥섬) 앞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어민

Chapter 1.

바다를 품은 섬, 조기잡이의 기억

애도는 예부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섬입니다. 한때 이곳에는 조기잡이 풍선배가 40척 넘게 드나들며 섬의 하루가 어업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배를 정박할 공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배가 모였고 어선마다 7~8명의 선원이 타고 조업에 나섰습니다. 조기철이 시작되는 봄이면 섬에는 사람의 발길과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마을 곳곳에 어망을 손질하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루는 바다에서 시작되어 바닷가에서 마무리되어 섬의 골목은 늘 사람과 바람, 생선의 향으로 채워졌습니다. 조업을 마친 배들이 차례차례 줄지어 돌아오고 선원들의 이야기와 바다의 온기가 마을에 퍼지던 그 시절 애도는 활기와 생명으로 빛나는 바닷마을이었습니다.

*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도서백서』(행정안전부, 2011),
김준, 『섬문화 답사가-여수·고흥편』(서책, 2012)

Chapter 2. 정원을 가꾸는 섬, 지금의 풍경

이제 애도(쑥섬)의 중심은 바다에서 정원으로 옮겨왔습니다. 섬 주민들은 정원과 마당을 가꾸며 하루를 엮습니다. 돌담을 다듬고 화단에 꽃을 심고 골목길마다 손길을 더하며 사람과 식물이 함께 숨 쉬는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바라기를 심고 누군가는 야생화를 돌보며 계절을 맞이합니다. 수국, 라벤더, 천일홍, 칸나 처럼 계절마다 색과 향이 바뀌는 꽃들이 섬 곳곳에서 피어납니다. 집 앞 정원은 섬 주민의 마당이자 쉼터이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길이기도 합니다. 모종을 나누고 물을 주며 함께 웃으며 돌보는 이 시간 속에서도 애도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섬은 아름다워 지고 있습니다.



◀▲ 섬 담장에서 자라고 있는 다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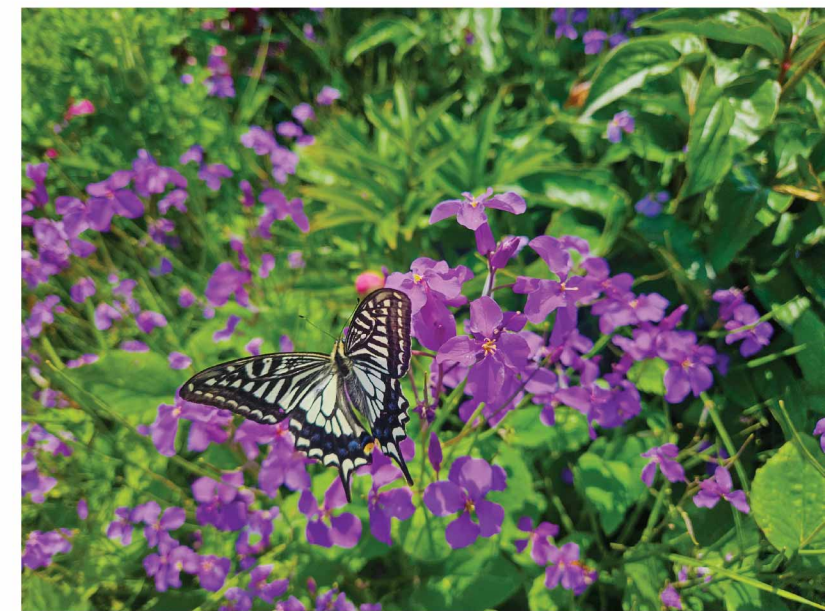


▲ 폐부표 재활용한 화분

Chapter 3.

섬살이, 손으로 계절을 이어가는 일상

이 섬의 일상은 자연과 나란히 걸으며 이어집니다. 봄이면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꽃을 다듬고 나무를 돌봅니다. 가을에는 낙엽을 쓸고 겨울에는 다음 계절을 기다리며 화단에 거름을 줍니다. 섬에서는 하루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걷고 묵묵히 가꾸며 사람과 시간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정원은 단지 아름다움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자 나누는 마음입니다. 섬사람들은 계절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전엔 그 계절을 조기와 함께 느꼈고 지금은 꽃과 흙, 사람의 손길로 느낍니다.



▲ 꽃 사이를 누비는 호랑나비

애도는 오늘도 사람들의 손길로 자라고 있습니다. 과거는 조업으로 가득했고 지금은 꽃과 대화, 마을 정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섬의 하루는 늘 누군가의 정성이 더해져 완성됩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연과 사람, 시간이 만든
민간정원 1호

힐링파크 쑥섬쑥섬 쑥섬지기

김 상 현

(전남 고흥)배타고 들어가야 만나는 섬위의 꽃정원,
20년간 교사&약사 부부의 정원!!행복해져라~
쑥섬 쑥섬 ktv, koreatv, island, garden (시즌4)

* 영상정보 : 귀농다큐 살아리랬다

Q1 애도(쑥섬)를 정원으로 가꾸게 된 계기와
과정은 무엇인가요?

2000년 밀레니엄이 시작되던 해, 평생 계획을 부부가 함께 세우면서부터입니다. 각자 종이에 하고 싶은 일을 15가지씩 적어보았는데, 두 사람 모두 1순위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꼽았죠. 여러 가능성을 고민하던 중, 쑥섬이 외할머니의 고향이라는 인연과 자연이 잘 보존된 환경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버려진 땅이었지만 계절마다 탐방을 거듭하고, 전국에 흩어진 소유자 30명을 8년에 걸쳐 찾아다니며 땅을 매입하고 정원으로 가꿔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꽃을 공부하고 저는 마을 가꾸기와 지역 사재를 분석하며 기반을 다졌습니다.

Q2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하셨나요?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사람의 손길은 최소화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기존 숲과 해안 경관은 그대로 두고, 탐방로를 중심으로만 이동하도록 설계했어요. 숲에는 옛 설화가 담긴 장소들도 있어 이를 기록하고 해설 콘텐츠로 반영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가치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 난대원시림 품에 안긴 포토존



Q3 이곳을 민간정원으로 만들기까지 어떤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나요?

가장 오래 걸렸던 건 '막막함'을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땅을 사놓고도 오랜 시간 진척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사람들에게 전해질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실제 작업 시간보다도 그런 마음을 넘기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정원을 하나하나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오히려 즐거움이었습니다.

Q4 정원을 조성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물이 없어 꽃을 심어도 다음주면 죽고, 비가 오거나 배가 결항돼 섬에 못 들어오면 칩닝쿨이 금세 뒤덮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또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믿고 큰 비용을 들여 만든 카페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실패를 반복하면서 쉼터로 기능을 단순화하고, 다시 운영 방식을 조정하며 섬의 리듬에 맞춰왔습니다.



▲ 별빛을 닮은 길, 쑥섬지기의 발걸음

Q5 '민간정원 1호'라는 타이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상징성과 책임감이 큼니다. 처음엔 그 제도조차 몰랐는데, 어떤 방문객이 민간정원 제도를 알려주어 알게 되었고 신청하게 됐죠. 전라남도에서 처음이라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어렵게 지정받았어요. '1호'는 최고의 정원이라는 의미보다, 이후에 이어질 정원들의 출발점이라는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Q6 정원을 가꾸며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정원을 통해 지역 인프라가 하나씩 생겨날 때가 가장 기쁠습니다. 인구가 적은 마을임에도 가장 먼저 상수도가 들어왔고, 이 덕분에 주변 카페와 숙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모습,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가 꿈꾼 대로 가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Q7 방문하는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섬을 찾은 분들이 “이곳이 나를 환대하고 있다”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람선처럼 정해진 시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마음껏 머물다 가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곳에서의 시간이 다른 고흥 지역 여행으로 이어지는 연결점이 되어, 지역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Q8 쑥섬의 미래를 위해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정원 내에서 ‘내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기관과 협력해 마을 정원에 자문도 하고 화분도 나눠주는 등 지역과의 연계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정원이라는 틀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을 담아내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연을 돌보는 기쁨을 느끼길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생기는 부작용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의 가치를 깊이 느끼고 돌아가는 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2, 제3의 공간을 만들어간다면 기꺼이 힘을 보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섬의 정체성과 사람들의 마음이 잘 이어지길 바랍니다.

[에디터 이야기]**섬의 시간과 자연에 대한 존중,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진심**

처음 쑥섬에 발을 디뎠을 때부터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그의 말에는 단 한 순간도 가벼운 결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20년을 넘게 쌓아온 섬의 시간과 자연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진심은 인터뷰어인 제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섬을 걷고, 꽃을 보고, 바람을 느끼는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오랜 노력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하루였습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섬밥상 위에 담긴 마음,
쑥섬에서 만난
요리사**쑥섬집밥 요리사 **김 경 희****Q1 쑥섬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광주에서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의 권유로 쑥섬에 잠시 다녀온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섬 특유의 고요한 분위기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인상이 강하게 남았어요. 남편은 먼저 이곳에 들어와 정착을 시작했고, 저는 도시에 머물며 고민을 거듭했죠. 그렇게 8개월쯤 지났을 무렵,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끌리듯 쑥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섬의 일상이 주는 여유로움과 잔잔함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 돌담길 끝에서 만나는 쑥섬집밥

Q2 쑥섬집밥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광주에서 작게 식당을 운영했을 정도로 요리에 대한 애정이 깊었어요. 섬에 들어올 땐 이제는 요리와 거리를 두고 조금은 쉬어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지나다 보니 지인들과 가끔 섬을 찾는 방문객들이 따뜻한 집밥을 그리워하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한 끼가 주는 힘을 저도 잘 알기에 처음엔 아주 작은 밥상으로 조용히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쑥섬집밥’이라는 이름도 생겼고요. 어느새 섬에서 하나뿐인 로컬 식당이 되더라고요. 식재료는 남편이 직접 바다에서 낚시해 올 정도로 신선함을 최우선으로 해요. 저는 매일 아침 직접 채소를 다듬고 매운탕, 장아찌, 제철 김치까지 정성껏 준비합니다. 손수 만든 밥상에는 그날의 날씨와 기분도 담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전해지는지 한 번 오신 분들이 다시 찾아주시고 지금은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도 생겼어요. 그렇게 쑥섬에서의 요리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Q3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 아침 6시 반쯤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요. 식재료를 다듬고, 매운탕 국물을 끓이고, 반찬도 정갈하게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오죠. 손님이 많을 땐 실 틈 없이 움직이지만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기분 좋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 피로도 금세 잊게 돼요. 점심이 끝나면 설거지와 정리를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마을을 산책하거나 식당 앞 작은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요. 저녁엔 다음 날을 위한 재료를 손질하고 식당을 정돈하면서 하루를 차분히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고 하루하루가 참 고마워졌어요.



▲ 제철 생선으로 끓여내는 매운탕 한 그릇

아니라, 진짜 섬의 분위기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느끼고 싶어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다는 점이에요. 쑥섬이라는 이름조차 처음 들어봤다는 분들이 방송을 계기로 관심을 갖고 일부러 먼 길을 달려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더 정성을 다하게 돼요. 방송 이후에는 공간도 조금 더 정돈하고 식당 안팎에 소소한 손길도 더했어요. 딸이 예쁜 벽화도 그려주었어요. 쑥섬집밥이 누군가에게 섬 여행의 기억으로 남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단골 손님들과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제겐 무엇보다 감사한 변화입니다.



[생방송 오늘 저녁] 맛도 사랑도 쑥쑥!❤️
'쑥섬 힐링 밥상'
쑥섬 쑥섬 ktv, koreatv, island, garden (시즌4)
* 영상정보 : MBClife

[에디터 이야기]

흔들림 없이, 자신의 리듬을 지켜가는 삶

쑥섬집밥 김경희 요리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제는 요리와 조금 떨어져 지내볼까’ 하며 섬에 들어왔지만, 결국 다시 요리를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재료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손질하고 차려내는 밥상에는 음식 그 이상, 삶의 애정과 따뜻한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쑥섬집밥이 소개된 이후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한 끼 한 끼를 정성껏 준비하는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진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리듬을 지켜가는 삶. 섬의 자연과 사람들 사이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녀의 일상은 그 자체로 쑥섬에서 피어나는 가장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PEOPLE ●●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Q4 어떤 메뉴가 가장 인기가 많나요?

가장 많이 찾는 메뉴는 매운탕이에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생선으로 맛을 내는데 주로 남편이 직접 낚은 제철 생선으로만 준비합니다. 신선한 재료로 끓여낸 매운탕은 국물 맛이 깊고 뒷맛이 깔끔해서 손님들이 감탄하시는 편이에요. 여기에 기본 반찬들도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 내요. 식탁에 정성과 계절을 담으려 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가셨다는 인사 한 마디에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게 또 다시 밥 짓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저 평소처럼 요리하고 손님을 맞이했을 뿐인데, 방송에서는 섬 특유의 정취와 집밥 한 끼의 소중함이 잘 담겼던 것 같아요. 방송을 보고 일부러 찾아오신 분들이 “정말 여기가 그 쑥섬집밥이에요?” 하고 물으시기도 했고, “화면보다 더 정겹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방송 직후부터 주말마다 식당 앞이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반가웠던 건 단순한 흥미로 오는 것이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고향에서 다시 시작한 삶,
쑥섬의 하루를
지키다

박영재 이장

Q1 애도(쑥섬)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애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곳은 맞은편 섬 축정(외나로도)입니다. 이후에는 작은 사업을 하며 전국을 떠돌았어요. 도시에서 오래 살았던 터라, 섬 생활은 낯설기도 했지만, 집안 동생이 “빈집이 있으니 와서 한 번 살아봐라”며 권해줬죠. 몸도 마음도 지쳤던 시기라 섬의 바람에 기대어보자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쑥섬과의 인연이 어느덧 6년이 되었네요. 처음엔 잠깐 머물 생각이었지만 이 섬이 주는 고요함과 따뜻한 이웃들의 정이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Q2 쑥섬 이장님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장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을의 마음을 모아가는 자리입니다. 쑥섬은 작고 아담하지만, 최근 방문객이 늘면서 챙겨야 할 부분도 많아졌어요. 마을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거나 함께 의논할 일이 생기면 회의를 열고 행정기관과 소통하며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늘어난 만큼 안내할 일도 많아졌어요. 가끔은 섬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예절 안내를 드리기도 해요.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예쁘게 섬을 즐겨주시고 다시 오고 싶다고 하실 때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조용히 흘러가던 마을에 조금씩 새로운 기운이 돌고 있고 그 변화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Q3 탐방객이 늘어나서 섬이 달라져가나요?

처음엔 하루에 몇 명 오던 손님이 이제는 수십 명씩 찾아옵니다. 날씨가 맑은 주말이면 선착장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해요. 그 모습을 보면 “섬이 살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탐방객들은 길게 머무르지는 않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쑥섬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가세요. 섬에서 만난 풍경, 사람, 음식에 대한 기억이 오랜 여운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작은 움직임이 결국 섬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Q4 최근 도선 2호가 취항했는데, 어떤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지난달부터 쑥섬에 도선 2호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배편이 늘어나면서 방문객들이 훨씬 여유롭게 섬을 찾을 수 있게 되었죠. 12명 정원의 작은 배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전 편하게 둘러보고 여유롭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섬에서 무엇을 보면 좋을지 어디로 걸으면 더 좋을지를 안내해드리는 일이 조금 생겼습니다. 섬이 조금 더 활기차지고 주민들도 그 기운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쑥섬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섬이 될 것 같아 기대가 큼니다.

Q5 앞으로의 꿈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쑥섬에서의 삶은 단순하지만 참 따뜻합니다.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고요한 선물처럼 느껴져요. 저는 지금처럼 섬을 돌보고 사람들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가끔은 마을 주민들과 나무 아래 바다를 보며 막걸리 한잔에 이야기 나누고, 교회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섬의 풍경이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남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섬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 마을길을 이야기해주는 박영재 이장



바다 위 비밀정원 '쑥섬'...
교통편 개선된다
#헬로tv뉴스

* 영상정보 : MBClife



▲ 인터뷰를 마친 발걸음, 섬의 풍경 속으로

[에디터 이야기] 몸도 달라질 겸 섬살이를 해보자!

박영재 이장은 말수가 많진 않지만, 섬을 향한 애정은 깊이 느껴졌습니다. 도시에서 살아오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몸도 달라질 겸 섬살이를 해보자”는 가족의 권유로 쑥섬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6년째, 이제는 누구보다 섬을 잘 알고 마을을 돌보는 이장이 되었습니다. “섬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는 게 보람”이라는 그의 말처럼, 선착장에서 방문객을 맞이하고, 주민들과 행정을 연결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새로운 배가 들어와 관광객이 더 편하게 오가는 요즘, 섬은 점점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특별한 꾸밈 없이 조용하게 하지만 정성스럽게 마을을 지키는 그의 모습은, 섬의 풍경처럼 변함없이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고흥 애도(쑥섬)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종 류	기 간	종 류	기 간
해삼	1월~2월 (금어기:7/1~7/31)	삼치	8월~11월
서대	2월~1월	톳	3월~6월 (금어기:10/1~1/31)
갈대기(농어새끼)	3월~8월	김(부유식양식)	9월~4월
자레이(병어새끼)	3월~4월	자연산 돌미역	5월
병어	3월~6월	가시리	8월~9월
세발낙지	4월~9월	우뚝가사리	8월~9월 (금어기:11/1~3/31)
돌문어(참문어)	5월~10월 (금어기:5/24~7/8)	청각	8월~9월
가오리	4월	고동	6월~4월
아귀	5월	쑥	3월~12월중순
민어	6월~10월		



알아두면 쓸모있는 알쓸K-섬잡

알아두면 쓸데없을 것 같지만 알고보면 쓸모가득한 K-섬 잡학사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같은 생선도 어릴 때는 이름이 달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역마다 고유 어휘가 다르게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고흥 나로도에서도 어린 물고기들에게만 쓰이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물고기 이름, 고흥 나로도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다 자란 물고기(성어 成魚) → 어린 물고기(치어 稚魚)

삼치	→	고시	병어	→	자레이
갈치	→	풀치	불락	→	불불락
감성돔	→	뽕돔	송어	→	몽어, 조도리
장어	→	깨장어	전갱이	→	메가리
농어	→	갈때기	전어	→	데미
멸치	→	시레이	참돔	→	상사리
민어	→	통치	참조기	→	잔조구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고흥 애도(쑥섬) 투어가이드

*2025년 5월 기준

1 고흥 애도(쑥섬) 기본 현황

가구·인구 20가구 · 31명
면적·해안선 길이 0.20㎢ · 4.42km

2 여객선 운항정보

고흥 애도(쑥섬)으로 가는
여객선 예매를 해볼까요?



NO	들어가는 시간(외나로도)	나오는 시간(쑥섬)
1	07:30	07:35
2	09:00	09:05
3	10:00	10:05
4	11:00	11:05
5	12:00	12:05
6	13:00	13:05
7	14:00	14:05
8	15:00	15:05
9	15:03	15:35
10	16:30	16:35
11	18:00 (하절기에만 운항)	18:05

선사 / 선박명 쑥섬도선운영위원회 / 쑥섬호
전 화 번 호 061-833-9211 (나로도연안여객선터미널)
성인 왕복 비용 2,000원
주 의 사 항 정원은 12인승으로 14명일 경우 12분을 먼저 모셔다 드리고 바로 2분을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 승선 우선(마지막 배는 주민만 승선 가능)으로 운영 됩니다.
쑥섬 정원 탐방을 원하 시는 경우 매표소에서 사전 결제 후 승선부탁드립니다. (탐방비 : 6,000원)



쑥섬 탐방 가보자 GO!

쑥섬에 오셨다면, 걷는 여행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섬의 탐방길은 바다와 숲이 나란히 이어진 약 3km 코스예요. 걷는 시간은 천천히 걸으면 1시간 30분 정도. 서두를 필요 없어요! 마음 가는 속도로 풍경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참 예쁘게 지나갑니다. 탐방은 선착장을 조금 걷다 보면 나오는 계단에서 시작돼요. 계단을 따라 오르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건, 초록빛 난대림입니다. 이 숲은 후박나무, 육박나무, 푸조나무, 동백나무 등, 300여 종이 넘는 식물들이 어우러진 난대성 상록수의 보고예요. 수령이 400년 가까이 된 나무들도 있어서 걸을수록 시간이 쌓인 숲의 기운이 느껴져요. 마을 어른들은 오래전부터 이 숲을 '당숲'이라 불렀고,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 소중히 지켜왔대요. 지금도 그 숲길은 참 고요하고 아름다워서 걷는 사람에게는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기분을 선물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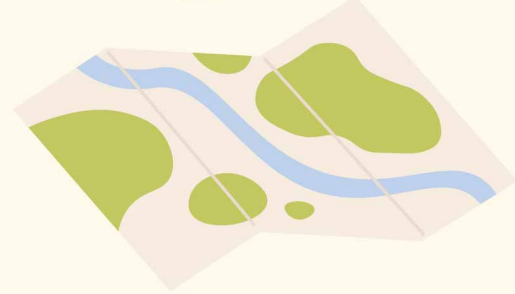
숲을 지나면 길이 점점 넓어지면서 해상정원과 하늘정원이 펼쳐져요. 이름도 참 예쁘죠? '별정원', '달정원', '애기동백정원'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 사이로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어서 걷는 내내 눈이 즐겁습니다. 중간에 만나는 '환희의 언덕'에선 쪽빛 다도해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액자처럼 펼쳐져요. 잠시 멈춰 한 컷,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랍니다. 길 중간중간에는 바다를 향한 벤치, 나무 정자, 피크닉 테이블 같은 쉼터가 마련돼 있어요. 걷다가 지치면 잠시 쉬어가도 좋아요. 그중에서도 '혼자되기 정원'은 꼭 한번 둘러보세요. 혼자라는 느낌보다는 섬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시간이 흐르거든요.

탐방의 마지막에는 '성화등대', '쌍우물', '사랑의 돌담길', 그리고 '갈매기카페', '우주인쑥섬'이 이어져요 성화등대에선 저녁 무렵 노을이 특히 아름답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멈춘 듯한 평화가 찾아와요. 쌍우물과 돌담길에서는 예전 섬의 풍경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탐방을 마친 후 '갈매기카페'와 '우주인쑥섬'에 들려 쑥라떼를 마시면 여행의 마지막 장면을 천천히 정리하는 기분이 듭니다. 쑥섬의 탐방길은 숲과 바다, 꽃과 돌담이 이어주는 이 길은 천천히 걷다 보면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지는 아주 다정한 여정이 되어줍니다.

오늘, 이 길을 함께 걸어보실래요?



FIND YOUR WAY



쑥섬 탐방코스

기본 탐방코스 (소요시간 : 약 1시간 30분)

선착장 → 탐방로 입구 (화장실과 갈매기카페 사잇길) → 난대원시림
→ 환희의언덕 → 문당길(야생화길) → 별정원과 달정원(비밀꽃정원)
→ 애기동백정원(겨울정원) → 수국정원 → 사랑의 돌담길 →
팜파스정원 → 동백길 → 우끄터리 쌍우물



- 1 선착장
- 2 화장실
- 3 탐방로 입구
- 4 혈떡길
- 5 난대원시림
- 6 환희의 언덕
- 7 문당길 (야생화길)
- 8 별정원과 달정원 (비밀 꽃정원)
- 9 애기동백정원
- 10 수국정원 (6월~7월)
- 11 사랑의 돌담길
- 12 팜파스정원 (9월~12월)
- 13 동백길
- 14 우끄터리 쌍우물
- 15 여자산포바위
- 16 남자산포바위
- 17 신성대
- 18 성화등대

추천 탐방 시간

계절	추천 시간대	꼭 봐야 꽃	이유
봄 (4~5월)	오전 10시 ~ 오후 2시	램즈이머, 알리움기간티움, 작약, 차가플록스, 숙근양귀비	쑥 향이 가장 짙고 수국, 라일락 등 봄꽃 개화 시기
여름 (6~7월)	오전 9시 ~ 오전 11시	수국, 노랑참나리, 보라셀비어, 에키네시아사이언스피릿, 백합	햇살이 강해지기 전 시원한 산책 가능
가을 (9~10월)	오후 11시 ~ 노을 전	풍접초, 삼잎국화, 간나, 미니백일홍, 공작아스타	섬에 핀 꽃들과 일몰이 아름다움
겨울 (12~2월)	오전 11시 ~ 오후 2시	금잔옥대, 스톡, 오스테퍼럼, 갯꽃, 동백꽃	동백과 다도해 풍경, 난대림 보존 상태 양호

일몰 명소 추천

성화등대, 환희의 언덕, 해상정원 벤치

탐방 전 준비물 및 주의사항



운동화 또는 트레킹화
길 대부분이 흙길과
목재 데크로 되어 있음



햇빛 가리개(모자, 선크림)
해안길은
나무 그늘 적음



카메라 또는 휴대폰
SNS용 사진 스팟
다수 있음

NEWS&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섬 여행 동반자' 전남도, 섬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 섬의 매력 잘 알리고 특색있는 섬 여행상품도 개발

전남도는 18일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전남 섬 안심 여행 안내자로 육성해 활동 중인 섬코디네이터 통합교육을 통해 섬의 매력을 잘 알리는 것은 물론 특색있는 섬 여행상품도 개발하는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활동 중인 섬코디네이터는 물론, 자격 취득을 목표로 기본·심화·특별과정을 이수 중인 교육생도 참여해 섬 해설과 콘텐츠 기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동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김준성 기자 | 2025. 06. 19.



전남도, 섬 해역 등 해양쓰레기 100여톤 수거



◎ 선박·화물차 투입해 섬 주변 해역 등 사각지대 집중 정비

전남도는 '제30회 바다의 날'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여수, 고흥, 강진, 완도 등 연안 시군에서 민간단체와 함께 해양쓰레기 100여 톤을 수거하고, 해양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번 정화 활동에는 수산업경영인, 해양구조단, 새마을회 등 7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 공무원 등 1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8개 단체에 총 1억 6천만 원을 지원해 해양쓰레기 수거, 수중정화, 해양교육, 캠페인 등을 추진 중이다.

김준성 기자 | 2025. 06. 04.

한섬원, '찾아가고 싶은 88섬' 홈페이지 오픈

◎ 섬 관광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섬 발전 도모

한국섬진흥원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내 88개 섬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2025년 찾아가고 싶은 섬'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흩어져 있던 섬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섬 관광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올해 찾아가고 싶은 88개 섬으로 ▲인천 17개 ▲경기 1개 ▲충남 6개 ▲전북 7개 ▲전남 37개 ▲경북 2개 ▲경남 14개 ▲제주 4개 등이다.

양진형 기자 | 2025. 05. 30.

진도군, 대마도 식수전용 저수지 준공...79억원 투입



◎ 수원지 2만톤, 정수시설 1일 80톤 규모 저수지 조성

진도군은 12일 조도면 대마도에서 도서지역주민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 준공식을 진행했다. 대마도 식수전용 저수지는 2022년 12월에 첫 삽을 뜬 후 약 2년 6개월 만에 준공했으며 총사업비 79억 원을 투입해 수원지 2만 톤, 정수시설 1일 80톤, 배수시설 80톤 규모로 조성됐다. 진도군은 조도면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59억원을 투입해 나배도와 관사도·서거차도와 상·하죽도를 잇는 해저 관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김준성 기자 | 2025. 06. 13.



윤종은 기자 | 2025. 06. 13.

"광복 80주년" 한섬원, 신안 하의도서 '보물섬' 행사



◎ 한섬원·국가보훈부·전기안전공사·신안군·소방서 교류협력
◎ 보훈대상자 15명 거주시설 개선 및 실버카 전달

한국섬진흥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남 신안군 하의도 거주 보훈대상자를 위한 5개 기관 '보물섬'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했다. 보물섬은 '보훈으로 밝게 물든 빛나는 섬마을 이야기'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기관은 한섬원을 비롯해 국가보훈부 전남서부보훈지청,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신안군, 신안소방서 등이다.

양진형 기자 | 2025. 06. 18.

해양교통안전공단, 드론으로 연안여객선 안전망 촘촘히

◎ 육안 점검' 한계 넘는 스마트 안전관리...
선사, 현장 비용·시간 절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드론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본격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전국 11개 운항관리센터에 항공 드론 32기, '3D 맵핑' 항공 드론 4기, 수중 드론 4기 등 총 40기의 드론을 배치해 여객선 현장 점검에 투입하고 있다. 드론 운영 횟수는 2022년 83회에서 2023년 347회, 2024년 733회로 매년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는 5월까지 이미 441회를 기록했다.

서삼석 의원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법" 대표발의

◎ 내륙 대비 '평균 5배' 섬 지역 택배 비용 국가지원 근거 마련
◎ 섬 주민 정주조건 개선과 국가 주도 섬 관광 활성화 초점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택배비 등 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3일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 개정안, 율령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종은 기자 | 2025. 06. 23.



전남 섬 소식은 **한국섬뉴스**와 함께합니다.



2025
전라남도섬발전지원센터



2025
전라남도섬발전지원센터